

# 신용등급 떨어질까 전전긍긍 크레딧 거품제거는 긍정효과

## 개별기업 독자신용 평가의 명암

### ● 드러나는 민낯

####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 전망 등급 하락엔 조달비용 확대

#.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은 최근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수익성에 비해 높은 차입부담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기자재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올해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부채비율은 178%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만 3600억원 수준이다.

신용등급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웃돈을 주고 돈을 빌려야만 한다. 과거에 웅진,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 믿었던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진 모습을 본 투자자들은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짙다.

갈 길 바쁜 금융사와 기업들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긴장하는 이유다. 계열사나 모기업의 그늘이 컸던 기업들은 신용 강등 쓰나미를 만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체신용도는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비경상적 지원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등급을 뜻한다. 지난해 민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기업까지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자체신용도 도입에 따른 충격보다는 ▲신용등급의 신뢰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기업 건전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신용거품 얼마나 빠질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기준 지난해 10월 말 현재 자체신용도 공개 대상은 219개사다.

이중 70.3%에 해당하는 154개사는 자체신용도와 최종등급이 동일했다.

반면 60개 업체는 자체 신용도보다 1등급 높게 평가됐고, 3개 업체는 2등급 가량 높았다.

반면 2개업체는 1등급이 낮았다.

AA~BBB+ 구간(자체신용도 기준 A+~BBB)에서 상향 비율이 높았다. 특히 A등급의 경우 대상 업체 24개 중 14개 업체(58.3%)에서 상향이 이뤄졌다. 반면 AA+이상과 BBB 이하에서는 대부분 자체 신용도와 최종 신용등급이 같았다.

자체신용도 공개 대상 219개사 중 국내 주요 16개 그룹 업체는 102개사였다. 한신평이 이를 분석한 결과 51개 사는 1등급 가

량 높았다. 1개사는 등급이 두 단계나 높게 평가됐다.

등급이 더 낮게 평가된 그룹 계열사는 1개사에 그쳤다.

49개사는 등급 변동이 없었다. 한국신용평가 김용건 실장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재무적·사업적 연계성, 평판 리스크 등이 반영된 결과다"고 분석했다.

나스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 240개사 중 자체신용도와 최종신용등급 간 차이가 없는 기업은 73.8%(177개사)였다. 자체신용도 대비 최종신용등급이 1등급 높게 평가된 곳은 24.2%(58개사), 2등급 높게 평가된 기업은 1.3%(3개사)였다. 반면 1등급 낮은 기업은 0.8%(2개사)에 불과했다.

#### ◆등급평가 '신뢰' 전제 돼야 시장 발전

기업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곤죽을 것처럼 얘기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계 한 재무담당 부사장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신용등급이 A-이하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자체신용도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업력이 없는 계열사는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불안감을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

# 금융 영토확장 '지역 넘어 글로벌' 조직 개편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W 금융 예측 2018

### ② 다시 뛰는 지방은행

#### 회장직·행장직 분리로 안정화 지난해 이어 실적 상승세 전망

지난해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등으로 풍랑을 맞았던 지방은행·지주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2018년 영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올해 디지털·글로벌 부문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주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는 등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조직 안정을 이루면서 그룹 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경영전략은 '디지털·글로벌·비은행확대'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지주 CEO들은 올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글로벌·비은행 확대' 등을 꼽았다.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은 '비은행·비이자 부문' 강화에 중점을 뒀다. 김 회장은 올해 경영 방침을 '그레이트 하모니 2018, BNK신 경영플랫폼 구축'으로 정하고 수익성·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핵심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WM), 디지털, 글로벌 등 핵심사업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그룹의 비은행·비이자 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GB금융지주 박인규 회장은 '혁신'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해 경영 목표를 '변화에 도전하는 NEW DGB'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디지털금융의 선도에 나선다.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신성장 동력 창출 전략도 추진한다.

JB금융지주는 '디지털'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역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내외 기반영업 강화, 전략상품 실적 제고를 비롯해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은 "디지털 금융 중심의 금융환경 전환은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라며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을 암시했다.

지방은행·지주의 올해 실적도 지난해 이어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의 '2018 산업 전망-은행·신용카드-언더퍼폼(Underperform) 종목들에 초과상승 기회 있다'란 보고서에서 BNK·DGB·JB금융지주의 2017년 연간 실적 전망치는 1조1500억원으로 전년(9330억원) 대비 8.8%(8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2018년엔 1조1090억원으로 2017년 대비 8.5%(94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지방은행들은 2017년 중 일회성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데다 실적 서프라이즈도 없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발생여지가 적다"며 "따라서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순이익 상당 폭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 ◆지배구조 안정화... DGB는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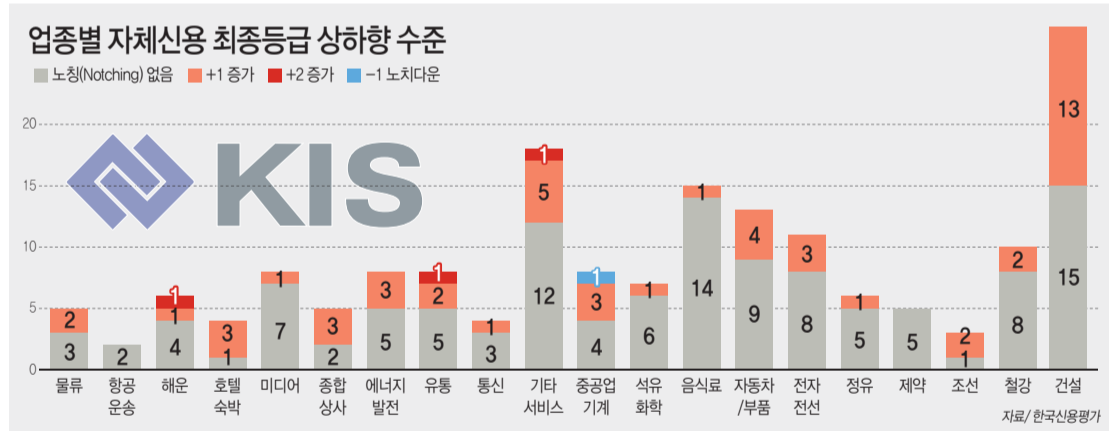
지방은행·지주들의 지배구조 안정화도 실적 및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은행·지주들은 'C EO 리스크'로 홍역을 치룬 바 있

다. 특히 BNK금융지주의 전임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재무적 지배구조 등의 한계를 마주했다. 이에 BNK금융은 창립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김지완 회장을 선임했고,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백년대계위원회'를 꾸려 조직 혁신에 나서고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며 조직 안정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

BNK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의 권력 분산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JB금융지주도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김한 회장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지주 회장직만 수행하기로 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도 연임에 성공해 2019년 3월까지 전북은행을 이끌기로 했으며, 광주은행은 창립 49년 만에 내부 출신 토종 은행장인 송종욱 행장을 선임하면서 안정적인 구도가 정비됐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투뱅크 체제'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DGB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회장과 행장(대구은행)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CEO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았다. 박인규 지주 회장 겸 행장이 이른바 '상풍권 깡'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태가 때때로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현재까지 직을 이어가고 있다.

/채성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애플, 배터리 교체 기준 철회

### 교체 필요한 사용자 →누구나

애플이 배터리 교체 기준을 철회했다. 사용자 원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때문이다.

3일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아이폰 사용자에게만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한 보상을 철회했다. 아이폰6 이후 출시된 모델 사용자는 누구나 29달러를 지불하면 배터리 교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배터리 정상 기준에 대해 "50회 충·방전이 이뤄진 후 배터리 성능이 80% 가량 유지되면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해왔다. 배터리 게이트 파문 이후 보상을 발표하면서도 애플 지니 어스바의 테스트를 거쳐 성능이 80% 미만인 제품에 한해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플이 한국 아이폰 배터리 교체를 시작한 2일 오후 서울의 한 애플공식서비스센터. /연합뉴스

맥루머스는 "애플이 통합 AS 센터 '지니어스바'에서 배터리 교체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만 교체를 지원해주겠다는 기준을 철회해주겠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며 "29달러만 내면 조건없이 바꿔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 정책이 시작된 올해 이전에 배터리를 바꾼 사용자에게도 애플이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 지엠 임팔라 500만원 파격 할인

### 완성車업계 공격적 프로모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새해 초부터 고객 잡기를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가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와 함께 새해를 첫차를 구매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을 진행한다.

가장 할인이 높은 브랜드는 한국지엠이다. 한국지엠의 2017년형 임팔라는 최대 할인이 500만원을 넘는다. 2.5LT는 기본 할인 322만원, 특정 월 생산분 할인 150만원, 재구매 혜택 50만원 등을 합쳐 최대 522만원이나 차값이 내려간다. 할인은 무려



현대차 코나.

14.6%이다. 모델별 구매조건을 모두 반영하면 할인은 캡티바 450만원, 올란도 330만원, 아베오·크루즈 300만원, 카마로 270만원, 말리부 200만원 등이다.

현대차는 단종모델과 지난해 재고분에 대한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다. 지난해 생산이 중단된 아

슬란은 기본가격대비 약 8% 저렴한 3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지난해 9월 이전 생산분에 한해 기본 i40, 쏘나타 뉴라이즈, 코나, 맥스크루즈는 최대 100만원 가격을 낮췄다. 이중 쏘나타 뉴라이즈는 기본 50만원 할인, 맥스크루즈는 3% 할인이 추

가된다. 지난해 베스트셀러카인 그랜저IG도 50만원 할인에 재고분 30만~50만원의 혜택을 합쳐 최대 100만원 가량 저렴해진다.

기아차는 1월 선착순 1만명에게 최대 180만원을 할인해주는 '굿바이 패스타'를 진행한다. 대상차종은 ▲모닝(최대 50만원) ▲레이(2017년형, 최대 80만원) ▲K3(최대 160만원) ▲K5(최대 180만원) ▲K7(최대 150만원) ▲스팅어(최대 150만원) ▲스포티지(최대 130만원) ▲쏘렌토·카니발(최대 80만원) 등이다. 아울러 이달 '스토닉' 시승 고객에게 20만원을 할인해준다.

르노삼성은 현금할인과 옵션 지원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기모델인 QM6는 40만원 상당 옵션 지원 또는 30만원 현금 할인, SM6는 60만원 상당 라이팅 패키지가 69만원 상당의 멀티내비게이션 중 각각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양성근 기자